

보도시점 2026. 6. 11.(목) 15:30 배포 2026. 6. 11.(목) 09:00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 「정책금융 동행」 대전에서 첫 개최 -

- 금융위와 6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정책금융 동행」 첫 개최
 - 1부 간담회에서는 대전·충청권 지역기업 70여개사 및 지역상공회의소(대전·세종·청주)가 참석하여 지역경제 현황과 애로사항 공유
 - 2부에서는 6개 정책금융기관별 지역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현장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금융상담 제공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년에는 25년 대비 34조원 증가한 年 164조원의 정책자금을 지방에 공급”하고, 지방은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한다”고 발언
 - 금융위는 ①수은, 무보의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추가 참여, ②모두의 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공급 확대, ③지역 에너지 대전환 및 K-GX 금융지원 강화, ④지방 우대금융 상시적 지원체계 강화와 함께 ⑤민간금융의 지방 우대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
-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카이스트 로봇동아리(Microrobot Research)를 방문하여, 동아리 회장 등 대학생들과 피지컬 AI 등 로보틱스 발전 동향, 첨단기술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

금융위원회는 6. 11일(목) 6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대전에서 처음 개최하였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 정책금융 동행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 6. 11일(목) 15:30 - 18:00 / 대전 인터시티호텔
- **참석자** : 약 150명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업은행 경영전략그룹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장 등
 - (지역기업) 대전·세종·청주 상의회장, 대전·충남 지역기업 70여개사

「정책금융 동행」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지역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현장 중심형 정책금융 협업 플랫폼**이다.

※ (참고) '26.3.27일, 6개 정책기관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번 1부 간담회에는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지역상공회의소, 대전·충청권 지역기업 70여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정부의 지역금융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충청권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이 집약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며, “대전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기관과 혁신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충청권이 향후 첨단기술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지방 우대금융이 정책과 민간금융에 뿌리 내리도록 **체질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에 기존 산은·기은·신보·기보 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추가 참여하며, 오는 2028년에는 2025년(130조원) 대비 34조원 증가한 **年 164조원의 정책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25.10월 발표계획] (’26) 103조원41.0% → (’27) 112조원43.0% → (’28) 121조원45.0%

[’26.6월 수정계획] (’26) 141조원41.7% → (’27) 151조원43.0% → (’28) 164조원45.0%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며, 지역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산업은행 회장의 「정책금융 동행」 행사 취지 설명, 금융위원회의 「지방 우대금융 주요성과 및 확산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대전·충남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및 지역금융 활성화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 및 답변이 이어졌다.

- * ❶ 수은, 무보의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추가 참여
❷ 상생금융 공급 확대 ❸ 지역 에너지 대전환 및 K-GX 금융지원 강화
❹ 지방 우대금융 상시적 지원체계 강화 ❺ 민간금융의 지방 우대 활성화

2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별 지역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설명하고, 별도로 마련된 상담 부스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금융상담도 함께 진행하였다. 6개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권역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순차 개최하여 지역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행사 종료 이후 카이스트 로봇동아리 (Microrobot Research)를 방문하여, 대학생들과 피지컬 AI 등 로봇틱스 발전 동향, 첨단기술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였다.

이덕원 위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AI,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여러분과 같은 인재”라고 언급하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활동을 독려했다.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지방 우대금융 주요성과 및 확산계획(금융위 발표 자료)

[별첨3] 정책금융기관 발표 자료(6개 기관)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02-2100-2861)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850)
		담당자	서기관	송병민 (02-2100-2852)
	한국산업은행 지역성장지원실	책임자	실 장	유영모 (051-640-3351)
		담당자	팀 장	이승욱 (051-640-3354)
	중소기업은행 전략기획부	책임자	본부장	정광석 (02-729-7471)
		담당자	팀 장	김은배 (02-729-632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책임자	부 장	계종성 (053-430-4331)
		담당자	선임차장	김영재 (053-430-4651)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책임자	부 장	박춘규 (02-6252-3411)
		담당자	팀 장	김은수 (02-6252-3413)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책임자	실 장	김윤석 (02-399-6771)
		담당자	팀 장	박영윤 (02-399-5316)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책임자	부 장	박상무 (051-606-7460)
		담당자	부부장	김보영 (051-606-7463)

